

| | | | |
|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| 보도설명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21. 8. 4(수) / 총 4매(본문4) |
| 담당 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기용, 사무관 신용화, 최정은 • ☎ (044) 201-3383, 3385, 3387 |
| | 공공택지기획과 | 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정재원 • ☎ (044) 201-4505, 4441 |
| | 도심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전인재, 사무관 최승연 • ☎ (044) 201-4381, 4382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8.4 및 3080+ 대책 주택공급 사업(도심택지·공공정비·도심복합 등)은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>

- ◆ (한국경제, 8.3) "공공개발로 9만가구 자신하더니... 실제 공급은 3,500가구 뿐"
 - 8.4대책의 공공재건축·재개발은 사업가시화 저조, 태릉 등 신규택지는 주민반발
 - 3080+ 도심공공주택은 주민의사 확인 없이 선정하여 반발초래(후보지 제외 요구)
- ◆ (조선일보, 8.4) "공공개발 1년 ... 13만 가구 약속, 말잔치로 끝나"
 - 8.4대책에서 서울·수도권 13.2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1년째 사업실적 전무
 - 지자체 반대로 태릉골프장은 사업 제동, 과천청사는 사업철회 등 부진
 - 공공재건축, 공공직접시행도 후보지 확보저조 등 공공 만능주의에 시장은 외면

1) 8.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(태릉·과천청사 등)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,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추진 중으로, 8월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
-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상당부분 사업 절차가 진척되었습니다.
- 이달 중 교통·공원녹지·일자리, 문화재·경관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개발구상(안)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으로,
- 금년중 지구지정·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의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, 지구계획 승인, 착공,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과천청사 부지 4천호는 지난 6월 발표했던 대로 대체지*를 통해 4.3천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며, 태릉 CC부지와 함께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
* 과천지구 등 자족용지 용도전환(→주택) 등을 통해 3천여호, 그외 대체지 1.3천여호 공급

- 특히,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, 대체지로 계획을 수정·보완하고 물량을 확대한 것 입니다.

- 용산캠프킴 부지는 금년 4월 토지정화 작업에 既 착수하였고 정화에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나, 정화기간 중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등을 병행하여 일정을 단축하고 신속 추진하겠습니다.

- 2) 또한, 공공정비사업,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내 주택공급 사업도 후보지 선정 및 주민동의 확보 등 사업추진 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① 공공재개발(5.6대책)·공공재건축(8.4대책) 사업

- 공공재개발·재건축은 현재 총 32곳, 3.4만호 후보지를 발굴하였고, 해당 후보지들은 기존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던 조합 설립 절차를 후보지 발표 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) 용두1-6(SH)·신설1(LH) 구역은 공공시행자 지정 기 완료

2) 흑석2·신문로·망우1 구역은 동의요건 완비 등 시행자 지정절차 차질 없이 이행 중

3) 성북1, 장위9 등은 주민-공공시행자 간 양해각서 체결 및 '22.上 시행자 지정 계획

- 앞으로 정비구역인 후보지 12곳¹⁾(6.5천호)은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, 정비구역이 아닌 20곳²⁾(2.7만호)도 내년 초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,

1) (정비구역) 서울 내 공공재개발 8곳 5천호(1.15발표) + 공공재건축 4곳 1.5천(4.7발표)

2) (非정비구역) 서울 공공재개발 16곳 2만호(3.29발표) + 경기도 공공재개발 4곳 7천호(7.15발표)

- 통합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해나가는 등 5.6·8.4·3080+대책 등의 공공정비사업(공공재개발+재건축+직접시행) 부지확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일부 공공재건축,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, 공공재건축은 다수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후보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,
-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, 향후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(3080+대책)

-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080+ 대책(2.4)을 통해 신규 발표된 후, 2개월만에 후보지가 선정되기 시작하여 약 4개월여 만에 총 56곳 7.5만호 이상의 후보지가 선정·발표된 바 있습니다.

* 1차(3.31) 21곳/2차(4.14) 13곳/3차(5.12) 4곳/4차(5.26) 8곳/5차(6.23) 6곳/6차(8.4) 4곳

- 후보지 선정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 계획구상 및 구역 결정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논의*를 거쳤으며,

* 신규사업 발표(2.4) → 지자체대상 사업설명회 → 지자체 부지제안 → 협의 및 선정

- 예정지구 제안 등 후보지 선정이후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 사업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.

- 다수의 후보지중 일부 구역은 사업반대 주민의견서가 제출*된 곳도 있으나, 대부분 구역들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

* 부산 전포3, 당감4, 대구 달서구 신청사, 서울 신길4구역 등 4곳

-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10% 이상 주민동의서가 제출되기 시작했으며,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β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전례 없이 주민 동의 속도가 빠른 상황*이며,

* (10% 초과동의 추이) 3곳(4.14) → 6곳(5.12) → 12곳(5.26) → 21곳(6.23) → 30곳(7.22) → **31곳(8.4)**

** (30% 초과동의 추이) 21곳(7.22) → **26곳(8.4)** / (50% 초과동의) : 13곳(7.22) → **19곳(8.4)**

*** (2/3 초과동의 추이) 1곳(5.12) → 2곳(5.26) → 4곳(6.23) → 8곳(7.22) → **11곳(8.4)**

- 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주민동의 확보에 나서는 시점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,

- 대다수 도심복합사업 후보구역에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동의를 모아 제출하는 등 높은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- 특히, 최근 법개정(6.29) 등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등 사업 진행이 가속화 되고 있고,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'21.9월 이후부터는 조기에 주민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지구지정 등을 위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
- 아울러,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 사업효과 및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,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8.4, 3080+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사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총괄과 최승연 사무관 (☎ 044-201-43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